

관리자의 정성이 농장생산성을 좌우한다.

조문규기자

「오리는 정성을 먹고 자라는 가축입니다.」 충북 진천군 문백에서 오리사육과 오리고기 유통을 준비중인 정현철 사장의 일답이다.

오리는 아무거나 잘먹고 질병이 없어 사육관리가 쉽다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답변이다.

이같은 정사장의 답변일각에는 오리사육농가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육관리자의 세심한 관리가 그 농장의 생산성을 좌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원농산 초창기 위탁사육, 오리요식업소 경영, 오리부화, 오리 개별사육등 오리분야에 안해본 것이 없이 7년 넘게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사장의 오리사육관리 방식을 들어보자.

오리사육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앞서 설명한 관리자의 정성입니다.

관리자의 정성은 육추시 온도관리, 급수관리, 육성시 축사내부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바닥관리, 급수기 주변의 깨끗한 환경유지입니다.

특히 육추장 관리는 새끼오리 입식전 깨끗한 청소와 소독을 필히 마친후 바닥 깔짚의 두께를 일반농가보다 배이상 두꺼운 8cm정도를 깔아줄 것을 권

장한다. 이는 바닥이 포근해야 새끼오리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여 잘 자란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이다.

또 온도조절을 위한 육추기는 가스육추기와 열풍기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가온상태와 사육일령별 적정온도가 유지되는가를 점검하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조작은 금물이라고 귀뜸한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한낮에 기온이 올라가 육추기 가온을 중지하고 관리소홀로 제때에 가온을 안해주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사료는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품질이 좋은 사료를 충분히 급여하고 음수역시 수시로 체크한다.

정사장은 육추시 사료를 떨어트린다면 급수가 안되는 경우 폐사율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하일령이 늦어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하고 새끼오리때 1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출하일령이 하루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육용오리 축사내의 사육관리에서 정사장이 신경쓰는 부분은 바닥관리와 적정 사육수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축사내 바닥은 왕겨가 항상 뽕송뽕송

할 정도로 하루에 한 번 왕겨를 깔아 주고 평당 수용수수를 11마리를 넘기지 않는다.

이는 축사바닥이 축축하면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고 증체가 지연되는 원인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사장은 축사바닥관리를 잘하는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사이에는 같은 일령에 출하하더라도 출하체중에 큰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이는 현재의 육용오리 가격정산 시스템이 마리당으로 출하되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출하시 상품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감안하면 사육관리 불량은 사육농가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또 축사내 전등은 1천수를 수용할 수 있는 축사를 기준으로 해서 백열전구 6개를 켜주고 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정사장은 밤에도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증체가 잘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든 사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출하일령까지 무제한 급이를 실시한다.

사육농가에서 오리출하가 잘안되는 경우 대부분의 농가에서 제한급이를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상품성을 더 떨어뜨려 농장내 오리출하를 더욱 지연시켜 경영악화를 부채질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정사장은 출하체중까지 도달

한 오리는 가능한 제때에 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만일 오리출하량이 많아 출하일령이 지연되는 경우 가격을 낮춰서라도 출하할 수 있으면 출하하는 것이 농장 전체 경영상 유리하다고 믿고 있다.

또 육성사의 급수기 주위는 더욱 청결성을 유지한다.

이는 급수기 주위가 불결하면 오리가 물을 먹으면서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 폐사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사장은 이같은 사육관리가 생활화 되면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오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한다.

또 전국에서 진천지역 주변의 사육농가들이 오리를 가장 잘 키우는 지역으로 믿고 있으며 이같은 이유는 올바르게 사양관리와 정성을 다하는 사육관리자들의 의식에서 찾고 있다.

오리 도압에 따른 일일 폐수처리시설 5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압장을 준공중에 있는 정사장은 향후 오리 사육뿐만아니라 오리고기 유통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도압장은 이미 준공검사가 끝나 도압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 도압장은 사육과 유통을 인티그레이션하여 품질좋은 오리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